

선지식 17
취운선원장 약산스님
“한국불교
한국인 스스로...”

2
범불교도대회 봉행위원장
원학스님
“상설기구 만들터”

19
김영동씨 국가브랜드 연주회
“화엄” 국악관현악곡
발표

4
불심 빛나는 금메달
“북경올림픽
불자 메달리스트들”

9
도반의 향기-이진호씨
“음악으로 병치료”

‘헌법파괴 종교차별 이명박정부 규탄 범불교도 대회’ 열리는 8월 27일은

한국에서 종교편향 사라지는 날

8월 27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개최되는 ‘헌법파괴·종교차별 이명박 정부 규탄 범불교도대회’에 2000만 불자들의 역량이 집결되고 있다.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등 불교종단협의회 소속 27개 종단으로 구성된 범불교도대회봉행위원회(위원장 원학스님)는 연일 회의를 열어 스님들과 불자들의 참가를 독려하고 준비사항을 체크하고 있다. 조계종도 8월 18일 전국교구본사주지회의, 19일 직할교구총회에 이어 20일에는 임시중앙총회, 21일에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범불교도대회’ 강행 의지를 천명했다.

대회 참석인원을 20만~30만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봉행위원회 측은 전국 사찰에 최대한 많은 스님과 신도들의 동참을 독려하면서 행사 당일 각 사찰별 하차(下車) 장소와 번 및 피켓송 문구도 공문을 통해 전달했다. 또 대회 개최 시간인 27일 오후 2시에 전국 사찰의 범종(梵鐘)을 동시에 타종한다는 계획을 마련하고, 일간지와 불교언론에는 대회를 알리는 광고까지 게재했다.

대형 과불이 설치된 행사장에서 열리는 이날 대회는 오후 1시30분부터 2시까지 식전 문화행사에 이어 2시부터 본행사가 진행된다. 본행사는 삼귀의, 반야심경, 고불문(종단협 사무총장 홍파스님), 경과보고(집행위원장 진화스님), 봉행사(봉행위원장 원학스님), 대회연설(수경, 법현스님), 연대사(KNCC 종교간대화위

원장 김광준 신부), 자정과 참회의 연비, 결의문 낭독(선원대표 지환스님), 국민에게 드리는 글(천태종 사회부장 경천스님), 발원문 낭독(진명스님), 사홍서원 등으로 진행된다. 이어 2부에서는 서울광장-태평로-세종로 사거리-종각-우정국로로 이어지는 행진이 이어진다.

이처럼 불교계가 사상 유례 없는 대규모 대정부 법회를 계획한 것은 이명박 정부 들어 공식사회의 종교편향이 도(度)를 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현 정부 초반인 지금 종교편향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이 정권 5년 내내 종교차별 사건을 넘어 대한민국의 복음화가 진행될 것이라 우려도 깔려 있다.

불교계는 ▲국토해양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등의 지리정보시스템 사찰 정보 누락 ▲“전국경찰복음회 금식성회” 포스터에 어청수 경찰청장 사진 게재 등으로 불만이 누적된 상태였다. 약속 기일을 넘겨 정부가 보내온 답변도 구체적인 성의가 담기지 않았다는 여론이 높았고, 더욱이 지난 7월 30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 차량에 대한 과잉검문 사건까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봉행위는 전 불교도의 뜻을 모아 ▲대통령의 공개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종교차별 방지를 위한 법률 제·개정 ▲어청수 경찰청장 등 관련자 문책 ▲국민화합을 위한 촛불집회 관련자 수배 해제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봉행위는 이번 대회를 마친 후 정



“정권의 종교차별·기만행위 더이상 좌시않겠다” 조계종 중앙총회(의장 지승스님·사진 오른쪽)는 8월 20일 제177회 임시중앙총회를 열고 ‘헌법파괴 종교차별 이명박 정부 규탄 범불교도대회’의 원안 봉행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이날 중앙총회는 ‘종교차별종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감사원에 종교차별과 관련한 감사를 청구하기로 결의했다. 사진 왼쪽은 총무원장 지관스님. 사진=박재원 기자

부가 가시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거나 정부 태도에 변화가 없을 경우, 지역별 불교도대회를 열고 봉행위를 상설기구로 바꾼다. 이 대통령의 남은 4년6개월 임기 내내 종교 편향 문제를 따지고 대안을 찾아나갈 계획이다.

김성우·노덕현 기자

“잘못 방치하는 것도 계 범하는 것”

지관스님 ‘파사현정’ 강조

“수행자가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아야 하지만, 지금은 옳고 그른 것에 대해 얘기해야 할 때다. 그른 것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옳은 것은 더 부각시킬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 들어 연이어 발생한 종교차별에 대해 조용한 대응으로 일관해 온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이 마침내 파사현정(破邪顯正-그릇된 것을 깨고 바른 것을 드러냄)의 의지를 밝혔다.

지관스님은 8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조계종 전국교구본사주지회의에서 “(종교차별 시정) 종교들의 뜻이라면 우리도 거기에 따라 가야 한다. 부처님은 잘못된 것을 방치하는 것도 계(戒)를 범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셨다”며 종교차별 종사의지를 천명했다. 스님은 이어 “이념과 계층, 종교 등 사회의 모든 부분의 차별은 없어야 한다”며 “이번

불교도대회는 끝이 아닌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관스님은 19일 직할교구 총회에서는 이차돈의 순교를 거론하며 “법을 제대로 지키고 아울러 몸도 잘 지키는 게 바로 호법이며, 수행을 잘 해나가면서 잘못된 것을 물리치는 것 역시 부처님 법”이라고 강조했다.

지관스님은 20일 열린 중앙총회에서도 “우리 사회의 진정한 통합과 선진국 도약을 위해서라도 종교차별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우 기자

〈황금털 사자의 미미소〉 출간기념 돈연법사 강연회

2008년 8월 27일 오후 6시 30분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2층 공연장

메주와철리스트 禪詩를 말하라

강연: 돈연 법사 첼로 연주: 도완녀 동참금: 1만원 주관: 현대불교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들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법률사무소 서안
강영화 변호사 | 031)436-3054 010-7504-4521
김기현 변호사 | 031)436-3114 010-7535-0685

www.buddhabook.co.kr
02_3672_7181
모든 불교서적이 모이는 곳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순 향산화 원력 100%”
청다향
부처님 재일공양 한국최초 식물화학 연구분석(동국대) 51가지 향기원형
덕유산 청다향 문의 055)941-1083

불가 최소수량에 희석하여 사용하는 관불·관육 전용 관불수향
올곧은 마음으로 참된 공양물만을 만드는
능인향당 향·조각·공양물
본사 02)3663-6777 직영매장 (조계사 맞은편 02-730-6888)

헌법파괴 종교차별 이명박정부 규탄 범불교도대회

8월 27일(수) 오후 2시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

대한민국 정부는 ‘선교’의 도구가 아닙니다.
대통령은 공개 사과해야 합니다.

정부의 전자지도에서 모든 사찰을 빠뜨린 것, 포항시 예산 1%를 선교사업에 사용하겠다고 전 포항시장을 중앙공무원교육원장으로 임명한 것, 경찰청장이 경찰복음화에 앞장 선 것, 청와대 간부는 ‘모든 정부부처 복음화가 나의 꿈’이라는 등 종교편향을 심대히 해치는 종교차별 행위가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불교계가 앞장서서 헌법에 명시된 종교차별 금지의 정신을 되살려 종교간 갈등을 방지하고, 우리 사회가 평화와 통합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명박 대통령은 공개사과 및 종교차별을 근절할 입법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 어청수 경찰청장 파면 등 종교차별 관련 공직자를 엄중 문책하라
- 이명박 정부는 촛불집회 관련 수배자 수배해제 등 국민 대화합 조치를 시행하라

모임시다! 8.27. 서울광장으로